

지휘자의 손짓에서 피어나는 동화



홍석원 예술감독

GSO 오티움 콘서트 4번째 테마
내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광주시향 홍석원 예술감독 지휘
‘어린 백조들의 춤’ 등 연주

광주시립교향악단은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GSO 오티움 콘서트 IV ‘동화’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두 차례다.

광주시향의 ‘오티움 콘서트(otum concert)’는 음악의 스토리를 해설로 풀어내 어려움 없이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광주시향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첫 선을 보이는 곡은 ‘프르트 차이콥스키’다. 3대 발레 음악 중 최고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 중 ‘정경’, ‘어린 백조들의 춤’, ‘왈츠’를 선보인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말러의 관현악 반주의 가곡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 ‘다인강의 전설’, ‘높은 지성의 잔미’ 등 4곡을 바리톤 공병우의 목소리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어린이의 이

상한 뿔피리’는 독일 민속시집에서 가져온 노랫말에 곡을 붙인 가곡집이다. 민속적인 리듬을 사용하고 특색 있는 선율을 사용해 시의 내용과 의미를 살렸다.

바리톤 공병우는 서울 국제콩쿨 1위, 프랑스 툴루즈 국제콩쿨 1위, 프랑스 파리콩쿨 1위, 프랑스 마르망드 국제콩쿨 1위, 벨베데레 국제콩쿨 특별상 등을 받았다. 프랑스 아비뇽에서 꼬지판투에 주역으로 데뷔했으며 지로나, 바르셀로나, 라이프치히, 파리, 오슬로, 낭트 등 유수의 도시에서 주역으로 활동 후 귀국해 정명훈 안젤라 게오르규와 라보엠에서 마르첼로로 연주하는 등 국내외 활동을 병행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을 연주한다. ‘어미 거위’는 프랑스의 사랑받는 동화작가 샬 페로의 동화를 소재로 한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다. 라벨은 그 동화집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작은 아이’, ‘탑의 여왕, 라드르네트’, ‘미녀와 야수’, ‘요정들의 정원’ 5가지 이야기를 테마로 해 어린 시절의 환상과 동심을 추억하게 하는 순수하고 신비로운 음악을 탄생시켰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이지수 ‘Hero’

잃어버린 자아 되찾아줄 영웅

이지수 개인전 ‘Hero’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지수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이지수 작가의 개인전 ‘Hero(히어로)’는 다양한 컬러감과 소재들로 탄생한 가상 영웅에 작가의 감정들을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작가는 가상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 작품을 그렸다.

작가는 인간관계에 있어 자신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주변의 의견에 순응하며 살아왔

으며 이러한 삶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듯한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작가의 작품 속 ‘Hero’는 강한 자신감을 가진 용기 있는 인물을 의인화해 표현한 것이다. 평소 가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그림 속에서 다양한 ‘Hero’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얼굴로 당당하게 악당을 물리치는 듯한 ‘Hero’의 모습들은 내면의 ‘나’를 표출한다.

작가는 현재 본인이 처한 인간관계와 앞으로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갈망들을 ‘Hero’를 그려내며 해소했다고 밝혔다. 작품에서 보이는 세밀한 붓터치와 재미있는 구성요소들은 작품의 영웅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전시 마지막 날인 20일은 오후 1시까지다. /최진화 기자



광주시향

광주문화재단, 장애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선정

광주문화재단이 2022년 지역장애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돼 2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5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장애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능동적인 문화

주체로 자립하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광주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 명칭인 ‘예술날개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의 구성원으로 공존하고 예술의 날개로 함께 날아오르자는 의미를 담

고 있다. 특히 장애인·비장애인이 예술로 행복하고 존중받는 광주를 위해 장벽 없는 예술향유, 차별 없는 창작활동,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사업목표로 삼았다.

올해 주요사업은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창작센터 ‘보듬’ 운영 ▲연극교실 및 악기연주 등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날개 네트워크 페스티벌 등 이다. /이나라 기자

스릴러 연극 ‘흉터’로 무더위 날려요

31일까지 동산아트홀

공포 심리 스릴러 연극 ‘흉터’가 오는 3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2012년 초연돼 대학로의 대표 공포연극으로 사랑받은 ‘흉터’는 치밀한 구성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상상 이상의 잔인한 반전을 통해 1초도 쉬지 않고 관객들을 지극한다.

지은, 재용, 동훈 세 친구의 등산과 지은의 돌연 의문사를 시작으로 다시 찾은 등산 속

마주하게 되는 기억과 진실이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같은 사건으로 갖게 된 다른 상처 속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흉터’는 크고 작은 죄책감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한 마음의 흉터 그리고 아물지 못한 흉터를 상기시키면서, 작품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관객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은 화·수·목·금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와 6시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나 볼 수 있다. /이나라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평일 10시~18시, 주말 10시~18시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1 **ONE store**